

# Ἡ Ἰστορία τοῦ Ἰακώβου ὁ ὄνειρος ἐν Βεθὲλ Ἡ Ἰστορία τοῦ Ἰακώβου ὁ ὄνειρος ἐν Βεθὲλ Ἡ Ἰστορία τοῦ Ἰακώβου ὁ ὄνειρος ἐν Βεθὲλ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7회, 베델에서의 야곱의 도피와 꿈입니다. 창세기 27:41-28:22.

오늘은 17회입니다.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있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문은 27장 41절부터 28장, 22장까지 시작됩니다. 기억을 통해 이삭 가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제이자 그의 대적임이 입증된 에서는 2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지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아기가 태 속에 있을 때 했던 발꿈치를 붙잡는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레베카의 자궁 속에는 이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비유적 의미는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36장에는 그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만들어서 에서에게 팔았던 죽을 교환한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에서는 두 쌍둥이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는 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속임수로 그의 아버지를 속였고, 그 아버지는 소경이었으며, 야곱은 자기가 가장한 사람, 즉 에서가 아닌 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이 족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상속의 더 큰 몫을 받게 되기를 바랐던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음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분노가 잠재적인 살인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수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래 전에 사람들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22. 그러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또 요한1서 3장 15절에서 요한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비록 실제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대해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신랄한 태도를 취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살인이라고 올바르게 설명하십니다. 살인.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살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나 가능성,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뿌리 깊은 분노 때문에 살인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1절에서 시작하여 28장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의 도망은 그를 땅에서 데려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긴장은 약속된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긴장은 땅입니다.

결국 그는 11명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에 위치한 하란에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출산은 실현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소떼와 양떼, 그리고 단순히 그의 부의 증가를 통해서도 그것을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말하면 야곱은 그 땅에 이르자마자 그 땅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즉시 그는 20년 동안 이 땅에서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8장의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실제로 그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축복을 받을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다음 야곱의 생애 말년에 그는 다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으며, 그곳에서는 기근 중에도 번영을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인 요셉과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시리즈로 이동할 때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에서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현대 번역판에서는 에서가 미움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더 잘 번역하면 에서는 단순히 야곱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에서 측의 계획을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하고 죽이겠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 야곱,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졌을 투쟁, 그리고 어떻게 가인이 사악함으로 인해 실제로 아벨을 살해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는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리브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42절에서는 이것이 에서의 계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야곱이 왜 도망쳐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속인 남편 이삭 사이에 추가적인 긴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티브의 일부이며, 야곱 이야기와 실제로 모든 족장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임수, 오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조건은 항상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대신 붙잡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Rebekah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속인 것처럼 통제권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보내어 그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하란으로 돌아가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다른 종족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장에서 그의 종을 베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낳았고, 또한 리브가의 아들이자 형제인 라반도 낳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내인 이삭과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될 참된 야훼주의자, 참된 주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야곱의 경우에는 두 아내와 그 여종들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책략의 성격을 계속해서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룯이 이를 알고 43절에서 야곱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아들이 이제 내가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러므로 야곱은 공모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즉시 하란에 있는 내 형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얼마 동안 그와 함께 지내라 . 지금은 한동안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는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것이 영구적인 합의가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에서는 분노를 버리는 것을 잊고, 적어도 분노를 수정하면 야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왜 하루에 너희들을 모두 잃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들 야곱이

에서에게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 가족들이 에서에게 복수할 수 있었고, 에서는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녀가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임이었던 사라와 함께 시작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임으로 시작한 레베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문의 유산과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감정을 넘어 가장 심각한 손실로 보일 것입니다. 46절. 헛 족속 엘란의 딸 바스맛도 거기 있었더라.

그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슬픔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상 숭배자인 헛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이 헛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역겹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제이콥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럽다는 표현은 혐오감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아들 에서에게 일어난 일을 혐오했다는 것, 훨씬 더 강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서, 만일 야곱이 이 땅 여자들 가운데서, 이들 헛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생명은 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메아리가 있지만 상당한 대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삭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야곱을 격려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하는 27장 27절에서 시작되는 축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명과 금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니,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가족 외부에서 결혼하는 외혼(exogamy)과 반대로 가족 내에서 결혼하는 엔도가미(endogamy)라고 합니다.

이는 가족의 결속, 가족의 일치, 상속과 축복의 위협 없는 영속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북서쪽 빛단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브두엘은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례합니다. 네, 레베카. 그러므로 너는 그곳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그는 이 축복을 바칩니다.

아마도 그가 야곱에게 준 축복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출산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번식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약속하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후손의 연속성과 가족의 단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언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성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 샤다이.

우리는 샤다이(Shaddai)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EI)과 엘로힘(Elohim)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다양한 설명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엘 올람(EI Olam), 영원하신 하나님(God Eternal), 엘 엘리온(EI Elyon), 엘 로이(EI Roy)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엘 샤다이(EI Shaddai)인데, 이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 장에는 엘 샤다이가 한 약속에 관한 서문과 주님의 길과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는 여러 곳에서 조상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에서는 6절에서 자신이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한 일로 인해 가족들이 몹시 괴로워하고 분개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에서는 아마도 가장 총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은 사회적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는 제가 다리를 놓고 화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다면, 결국 이스마엘은 가족 집단의 일원이 되며, 비록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서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마엘은 총애받는 아들이 아니었고, 가족 내에서 발생한 분열을 치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자손,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랍 부족의 아버지인 이스마엘과 에돔 민족 그룹의 아버지인 에서 사이에는 근친 결혼이 있습니다

.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중에 일어나는 꿈이다 .

그리고 이 내용에는 10절부터 시작하여 장의 끝인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즉각적인 미래와 그 후의 재림에 관해 약속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35장에 이르면 그가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곳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약속과 야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또 다른 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꿈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준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물을 자르고 조각을 그 둘 사이에 통로와 평행하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로가 조각들 사이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수동적인 관찰자였으며 그 당시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어깨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는데, 그것은 가나안 밖의 또 다른 나라인 하란으로 가는 먼 여행이었습니다. 팻단 아람(Paddan Aram) 지역,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아람(Aram)과 나하라임(Naharaim) 지역에는 두 강의 아람강이 있으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북서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아람 사람들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브두엘과 라반의 가족 그룹인 라헬이 그들의 위치로 인해 아람 사람으로 식별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특정 장소에 도달하면 이제 언어 장소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1절에서 장소라는 단어가 어떻게 세 번 반복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가 벤엘 곧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될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기 때문에 그는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11절에는 장소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는 그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16절과 17절을 보면

야곱이 꿈 곧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하기를 과연 여호와시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니 또 여기 계시니라 나는 없느니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자는 자신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임재, 타인에 대한 느낌,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모든 위엄과 능력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이곳은 다른 아님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천국의 문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머리를 돌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돌은 중요해질 것이며 우리는 베델에서의 이 꿈과 그에 따른 사건에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 언어를 번역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번역한 일부에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머리 옆이나 옆, 머리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이 돌을 가져갑니다.

또한 그는 이 돌이 신성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의 돌이 되기에는 아직 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의 꿈이 있고, 이것이 그가 본 것입니다.

동사 saw가 보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것입니다. 계단.

이제 아마도 당신은 번역 사다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Stairway는 좋은 번역이다. 그리고 돌 다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특히 언어 계단은 우리가 바벨 사건에서 발견한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 탑이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하늘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땅 위에 계단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야곱이 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와 머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하늘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요점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역, 신성한 영역, 그리고 구체적인 땅의 거쳐 사이에 연결, 연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소. 그런 다음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이 연결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연결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라는 이 번역은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일반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야곱이라는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족장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창세기 독자들은 모세 세대와 후계자들의 관점에서 유월절에 백성들을 애굽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호와와 천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관해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이전 구절의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천사가 어떻게 도망자를 구출했는지, 여종을 추방했는지를 연상시킵니다. 16장에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방문객과 두 사람은 롯을 구출하는 데 참여한 솔로몬 가모라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18장과 19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구출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희생하기 직전이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독서에서 천사들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성 대명사에서 항상 남성 인물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갑니다.

그 위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해석상의 난제이자 어려움입니다. 그 이상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야곱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나 그 위에 있습니다. 위의 단어는 옆에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상에 있다면 사다리 옆이나 야곱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천국에 있다면, 즉 주님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천상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통해 인간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측면입니다. Jacob은 혼자 여행하기 때문에 이는 Jacob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그는 호위 서비스나 군대가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 혼자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장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 때문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재의 신학, 보호하시는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임재를 번영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우리는 여호와와의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이제 그의 정체성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상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조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브라함은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야훼의 신분에 추가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될 것이다. 그의 12 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벨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은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이 많이 하리니 이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비유 곧 하나님이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2:3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야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공경하는 종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즉 야곱이 학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러 면에서 그는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둘 사이의 평화 조약으로 끝난다. 그래서 라반에 의해 시작된 균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지나서 16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여러분과 함께 인식하고 싶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야훼와 두 번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미지의 신학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와 여자를 인격체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분은 한 존재, 한 본질로 연합된 세 위격이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야곱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꿈에서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응답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부모나 조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 시점이 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담겨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엘 샤다이, 야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고 듣는 것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으니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일련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사기꾼도 속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절이나 변덕스럽고 화난 반응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6장과 17장에서 찾은 내용을 이어가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건과 관련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의 장소는 하나님의 집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저 큰 궁전에 앉아 계시다는 다소 촌스럽고 문자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흥미로운 일이며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문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이다. 자,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여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저자의 마음에는 바벨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이라는 단어의 유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면 바빌론 사람들은 바빌론을 신들의 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관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성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을 머리 밑에 두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돌과 기둥으로 사용하고 조각한 것, 이 경우에는 기름의 장식, 즉 풍요의 임재,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전임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졌을 때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절을 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이 기념물을 가져다가 땅에 표시를 삼으셨습니다. 그는 땅을 떠난다.

그는 베델을 떠난다. 이곳은 가나안 북쪽 베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 아람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분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 믿음과 신실함을 20절과 서원하는 부분에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장소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델은 이스라엘의 미래 생활에 큰 규모와 영향력을 미치게 성장할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과 관련된 성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엘. 자, 신의 집은 그럴 것이고, 신들, 만약 여러분이 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신들의 거주지이다. 물론 여기서 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가리킨다. 이제 20-22절에서 우리는 이 서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 서원은 매우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즉, 조건문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것을 하시고 저것을 하시면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께 충성과 신실을 다하기로 결심하리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서원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사실상 당신이 나를 다시 데려오실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것임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충성을 보인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보라, 그것이 임재의 신학이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면 보호와 번영이 있을 것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가는 이 여행에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리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위해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광야 여행 동안 신앙 공동체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낚지 않은 옷. 21절, 그리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이제 거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개념이 연극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제로 그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약속을 초과하실 것입니다. 벤엘뿐만 아니라 벤엘과 브엘세바에도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봉헌 행위, 헌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 벤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당신에게 십일조를 주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함께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여 그와 멜기세덱이 야훼, 참되신 야훼의 동역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 엘리온(Ei Elyon)으로 확인되는 신.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야곱 안에서 약속이 영속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29장, 그는 팻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갈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리브가는 자신이 며칠 후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20년이 걸릴 것입니다.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개념과 예수의 삶에 천사들이 있다는 개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자신을 제자가 될 사람 중 한 명과 동일시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야곱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매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발생하는 죄, 약점, 실패, 이기심, 이 가족의 탐욕, 투쟁, 분열을 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행위, 치유가 필요한 곳에는 치유, 지지가 필요한 곳에는 지지를 통해 이를 대체하십니다. 그분은 조상들과 이스라엘을 오게 하여 그들을 부양하고 보존하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 사랑이 많은 성품,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성품은 인간의 사악함이나 조종이나 통제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저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이 장 28장에서 다시 듣는 것처럼, 놀랄 정도로 많아질 이 후손들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민족이 그러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족속, 즉 에돔 족속이 포함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종족 그룹.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해독제가 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한 나라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구원 사역을 제공하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성취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지명된 후손을 통하여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단 한 명뿐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축복할 사람, 받을 사람, 인정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 모든 종족에게 주어질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안식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 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분은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효과가 있는 속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속죄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를 그의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7회,  
에서의 야곱의 도피와 꿈입니다. 창세기 27:41-28:22.

베델